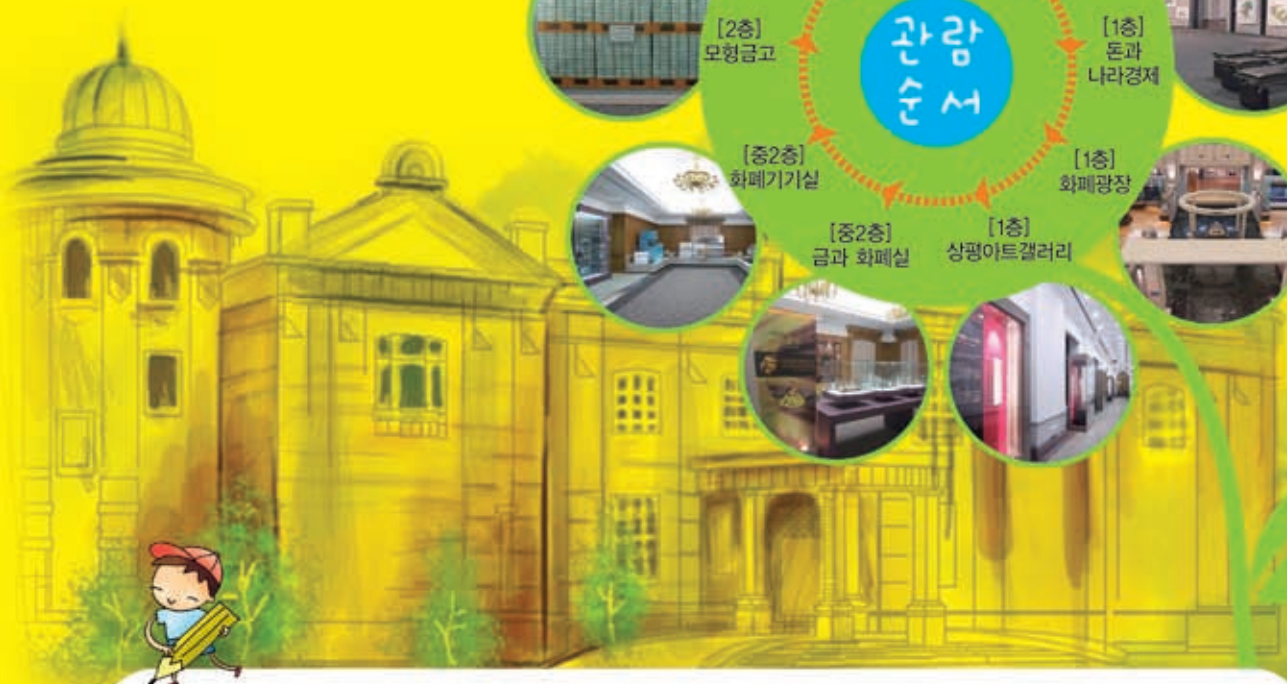


초등학교 저학년용

화교키 와 놀다보면~

어느새 나도 경제 박사



내 이름은 _____ 다녀간 날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 본 체험학습지의 저작권은 한국은행 화폐금융박물관에 있으며 무단으로 전재하거나 복제·배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중앙은행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으로서
물가안정과 경제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 한국은행은 돈의 양과 흐름을 조절합니다.
-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화폐를 발행합니다.
- 한국은행은 은행의 은행이고 정부의 은행입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돈을 발행할 수 있는 곳은 한국은행 단 한 곳 뿐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폐와 동전에는

--	--	--	--

 (이)란 글자가 새겨져 있지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한국은행과 비슷한 일을 하는 은행이 외국에도 있어요. 일본의 일본은행,
미국의 연방준비은행(FRB), 영국의 영란은행처럼 말이죠.

이런 은행들을

--	--	--	--

 (이)라고 부른답니다.



문제은행

1. 현재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6종류의 동전(500원, 100원, 50원, 10원, 5원, 1원)을
모두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모두 합하면 얼마일까요? ()

- ① 600원 ② 660원 ③ 650원 ④ 666원

2. 다음 중 한국은행이 하는 일이 맞으면 ○, 틀리면 ✕ 를 해주세요.

- ① 화폐를 발행합니다. ()
 ② 사이버머니를 발행합니다. ()
 ③ 어린이의 예금을 받습니다. ()
 ④ 엄마, 아빠의 예금을 받습니다. ()
 ⑤ 다른 은행의 예금을 받습니다. ()
 ⑥ 물가가 너무 뛰지 않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
 ⑦ 물가가 너무 뛰어 다니지 않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



2 화폐의 일상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돈은 몇 가지가 있을까요?

지폐 3종(_____ 원, _____ 원, _____ 원)과

동전 6종(1원, 5원, _____ 원, _____ 원, _____ 원, _____ 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만원, 오천원, 천원을 흔히 종이돈이란 뜻의 지폐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종이가 아니라 목화솜을 원료로 한 면섬유로 만들어요. 그럼 왜 종이 대신 면섬유를 쓸까요?

면섬유는 종이에 비해 잘 찢어지지도 않고 인쇄도 잘되면서 가짜 돈을 쉽게 만들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넣기가 쉬워서랍니다.

(위·변조화폐 식별법)

최근 눈으로는 정말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만들어진 가짜 돈이 가끔씩 발견되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합니다.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의 중앙은행은 가짜 돈을 만들지 못하게 최첨단 기술이 들어간 지폐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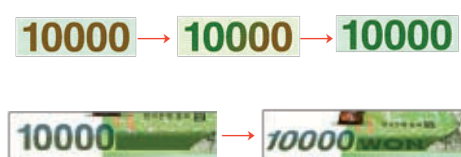
여기서 가짜 돈을 가려내는 간편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만져보고, 기울여보고, 비추어보세요. 진짜 돈과 가짜 돈의 차이를 알 수 있어요.

만져보고



기울여보고



비추어보세요



문제은행

- 돈이 찢어지거나 불에 타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한국은행이나 시중은행에 가져오면 앞·뒷면이 모두 있는 돈은 남아있는 면적에 따라 새 돈으로 교환해 줍니다. 서로 맞는 내용을 찾아 줄을 그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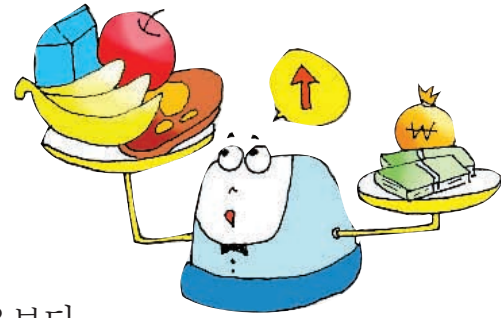
- 교환이 되지 않습니다.
- 전액(5000원)으로 교환해 줍니다.
- 반액(2500원)으로 교환해 줍니다.



3 돈과 나라경제

(물가와 인플레이션)

물가란 빵, 우유, 자장면 가격처럼 일상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값을 말합니다. 시중에 돈이 너무 많으면 물가는 오르게 되고, 돈이 너무 적으면 물가는 내려가지요. 그런데 물가는 내려가는 경우보다 올라가는 경우가 더 많아요. 물가가 계속 오르기만 한다면 돈의 가치가 떨어져 우리가 가진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줄어들게 되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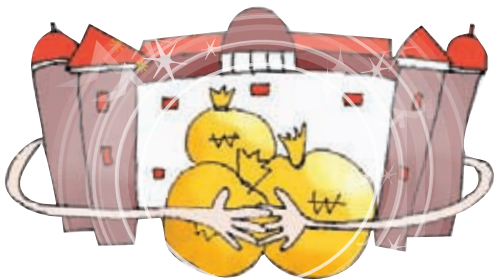
이러한 현상을

--	--	--	--	--

 이라고 합니다.

(한국은행과 물가안정)

한국은행이 돈을 아주 많이 발행한다면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돈도 많아져서 부자가 될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물건과 마찬가지로 돈도 흔해지면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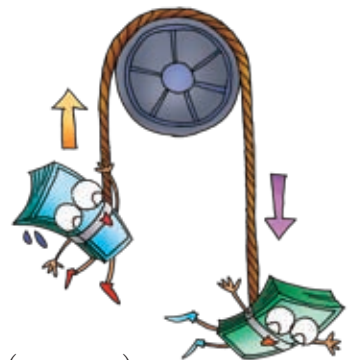
 (을)를 안정시키기 위해 알맞은 양의 돈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문제은행





1. 다음 중 물가가 올라가는 내용에는 ↑, 물가가 내려가는 내용에는 ↓를 해 주세요.

- ① 전쟁 때문에 식량이 귀해졌어요. 라면 값은? ()
- ② 미국에서 쇠고기를 많이 수입했어요. 한우 송아지 값은? ()
- ③ 농부들이 수박을 많이 심어 풍년이 들었어요. 수박 값은? ()
- ④ 물난리가 나서 배추가 충분히 재배되지 못했어요. 김치 값은? ()
- ⑤ 외국에서 원유 생산을 많이 줄인대요. 우리나라 휘발유 값은? ()
- ⑥ 새로운 게임기가 아주 많이 나왔어요. 내가 갖고 있는 구형 게임기 값은? ()
- ⑦ 명절을 앞두고 과일을 찾는 사람이 많아져요. 사과 값은? ()



4 화폐공장

(돈의 기원)

옛날 옛날 화폐가 없던 시절, 사람들은 필요한 것들을 직접 구해야 했습니다.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물고기를  잡아먹고, 산에 사는 사람들은 과일을  따 먹었지요. 어느 날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과 산에 사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 물고기랑 과일을 바꿔먹기로 했습니다. 무겁게 겨우 들고 갔는데 그만 물고기와 과일이 상해서 바꿀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원하지만 구하기는 어렵고, 가지고 다니기 편하며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조개 나 곡식  같은 물품을 사용하여 필요한 것을 주고받기로 약속했지요. 이러한 것들이 바로 **물품화폐**입니다. 사람들이 처음으로 쓰기 시작한 돈이죠.

고대 | 곡식, 장신구, 소금, 조개 같은 물품화폐를 사용하였습니다.



고려시대 | 우리나라를 뜻하는 '동국'이라는 말이 새겨진 동전이 만들어졌고, '은병'이나 '쇄은'처럼 은으로 만든 화폐도 사용하였습니다.



근대 | 1883년 설치된 우리나라 최초의 상설 조폐기관인 경성전환국에서 근대 동전을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조선시대

옷감을 화폐로 사용한 '포화'나 전쟁이 나면 화살촉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전폐'라는 돈도 있었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상평통보'를 만들어 나라 전체에서 사용했어요.



현대

1950년 6월 12일 한국은행이 설립된 후 마침내 한국은행권과 주화가 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처럼 화폐 대신 쓸 수 있는 편리한 수단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미래 | 미래의 돈은 어떤 모습일까요? 상상속 돈을 그려보세요.



5 상평아트갤러리

(상평통보의 역사적 의의)

조선시대 임진왜란 이후 발행된

--	--	--	--

는 우리나라 화폐 역사상 처음으로 나라 전체에서 유통되고 또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사용된 화폐입니다.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공평하게 쓸 수 있는 돈'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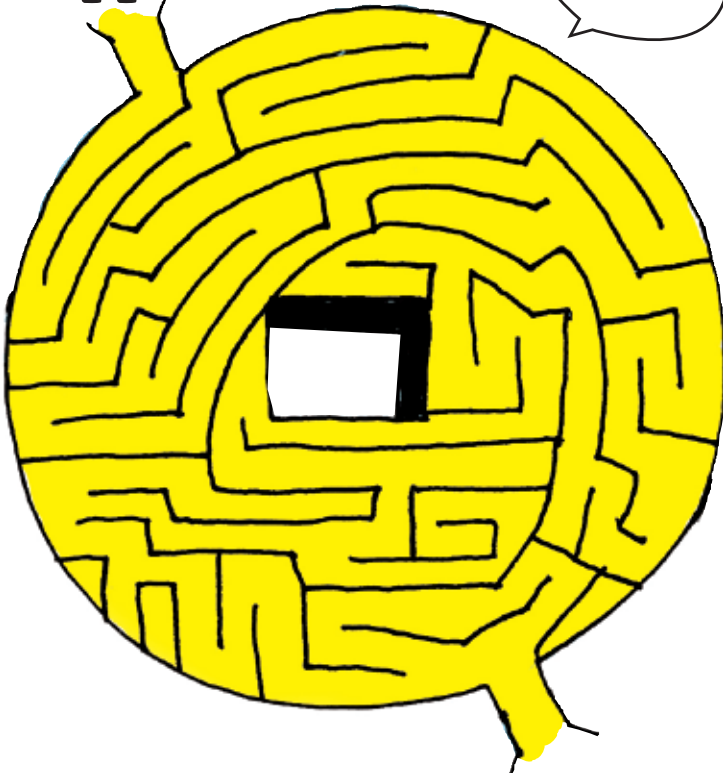
(상평통보 제조과정)

나뭇가지에 잎사귀 매달린 모양의 형틀을 짜고 그 안에 쇠물을 부어 굳게 한 후 돈을 하나씩 떼어내어 만들었습니다.



출발

나~
엽전이주~!



도착



문제은행

- 상평통보를 만드는 과정에서 돈이 나뭇잎처럼 매달려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은 무엇일까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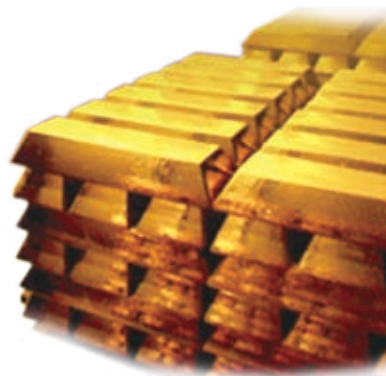
- ① 별전
- ② 목전
- ③ 엽전
- ④ 엽전



6 금과 화폐실

(금속화폐)

기원전 5~4천년 경부터 사람들은 금이나 은으로 만들어진 금속화폐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이나 은은 물품화폐보다 부피가 작을 뿐만 아니라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아 오랫동안 화폐로 사용됐답니다.



(지폐의 탄생)

금이나 은을 화폐로 사용하다보니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였답니다. 돈으로 만들 때 들어가는 금의 양을 속이기도 하고 운반할 때 무거운 것은 물론, 도둑의 표적이 되기도 했어요. 게다가 이러한 귀금속은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어 필요한 만큼 만들어 쓰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민 끝에 금속화폐의 무게만 적힌 종이를 주고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폐가 탄생했어요. 종이는 금이나 은보다 훨씬 가벼워 운반과 휴대가 쉽고, 돈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금에 비해 적게 들어요.



문제은행

1. 옛날 서양에선 구리나 납 등으로 금을 만들려고 했답니다. 자연과학 분야의 발전에 크게 도움을 준 이 기술은 무엇일까요? ()
 ① 변신술 ② 연금술 ③ 위장술 ④ 마술
2. 금이나 은에 비해서 지폐를 쓸 때 좋은 점이 아닌 것은? ()
 ① 지폐는 가볍기 때문에 운반과 휴대가 편리합니다.
 ② 필요한 만큼의 재료를 손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③ 돈을 만드는데 비용이 적게 듭니다.
 ④ 불이나 물에 강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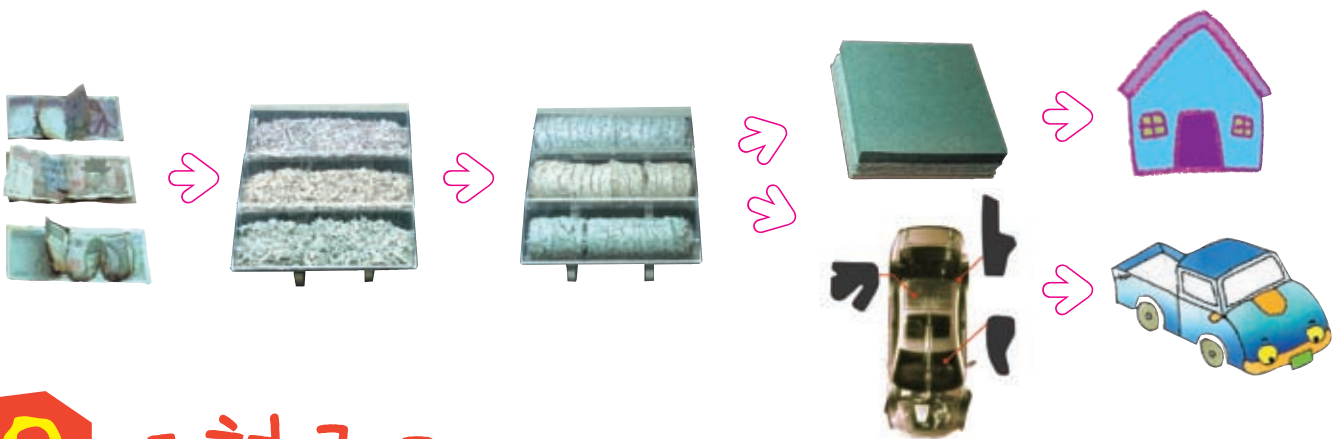
7 화폐기기실

한국은행이 발행한 화폐는 엄마·아빠의 지갑 속에 들어 있다가 시장에서 반찬을 사거나, 문방구에서 연필을 살 때처럼 이리저리 쓰이다가 다시 한국은행으로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한국은행은 계속 쓸 수 있는 돈과 찢어지거나 너무 더러워 더 이상 쓰기 어려운 돈을 가려냅니다.

그럼 못쓰게 된 돈은 그냥 버릴까요? 아니에요. 건물 바닥재나 차량용 방진재처럼 필요한 물건으로 다시 태어난답니다.

그렇다고 돈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돼요. 우리나라에서 한 해 동안 폐기되는 돈은 5톤 트럭으로 약 200대 분량이나 된대요. 그리고 이렇게 버려지는 돈을 새로 만들기 위해 매년 1,000억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이제 아시겠죠? 우리가 돈을 깨끗이 쓰는 것도 나라경제에 큰 보탬이 된다는 것을!



8 모형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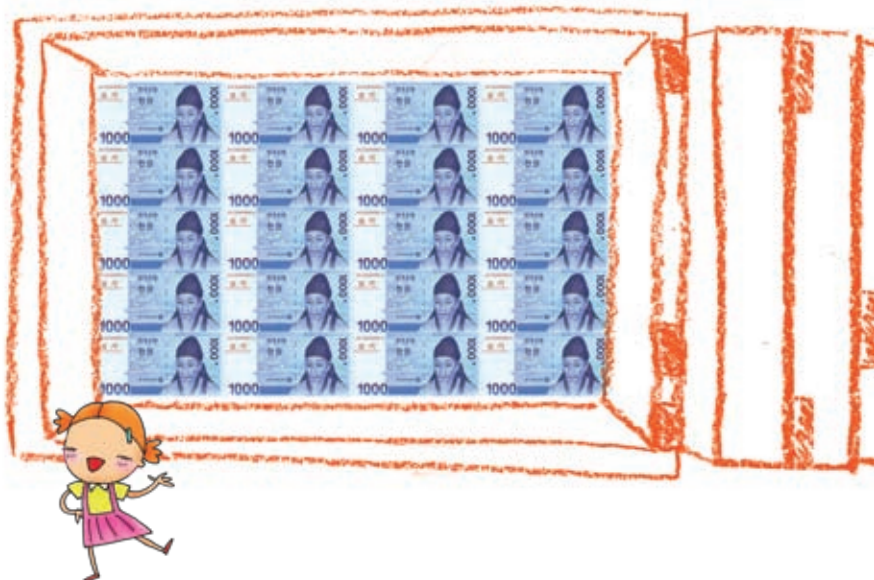
화폐를 발행하는 기관인

--	--	--	--

의

요청에 따라 한국조폐공사에서 만들어진 화폐는 한국은행 금고에 잘 보관해 두었다가 시중에 돈이 필요하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의 은행들을 통해 내보냅니다.

모형금고 안에 천원짜리 지폐가 보관되어 있어요. 알마가 들어 있는지 맞춰 보세요.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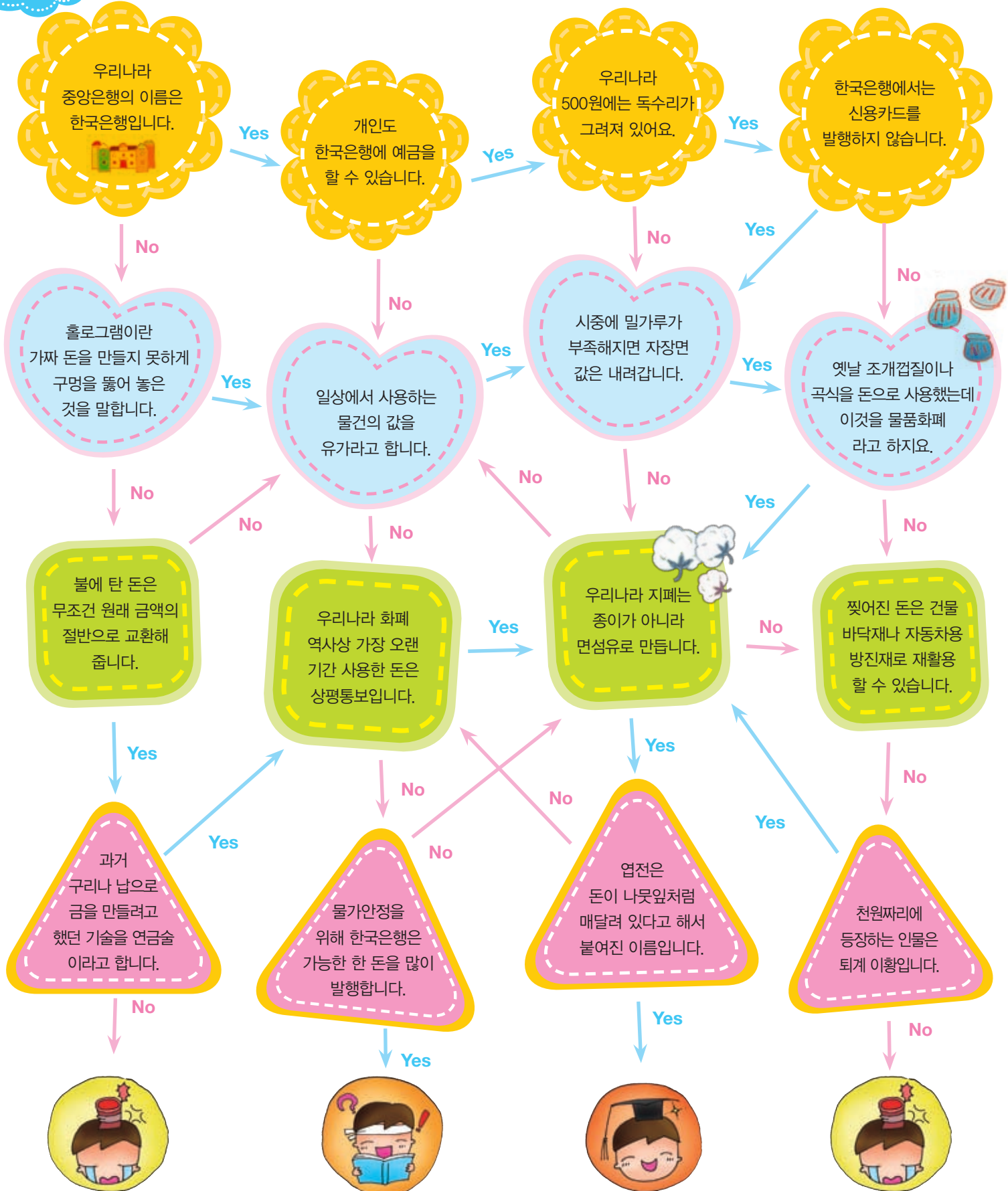
9 세계의 화폐

세계 각국의 화폐에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와 생활양식이 담겨 있어요.
그 나라가 자랑하는 인물, 동물, 식물, 그리고 세계적인 문화유적 등을 도안으로 사용합니다.



10 나도 경제박사

출발



★ 아쉽지만 다시 한 번
도전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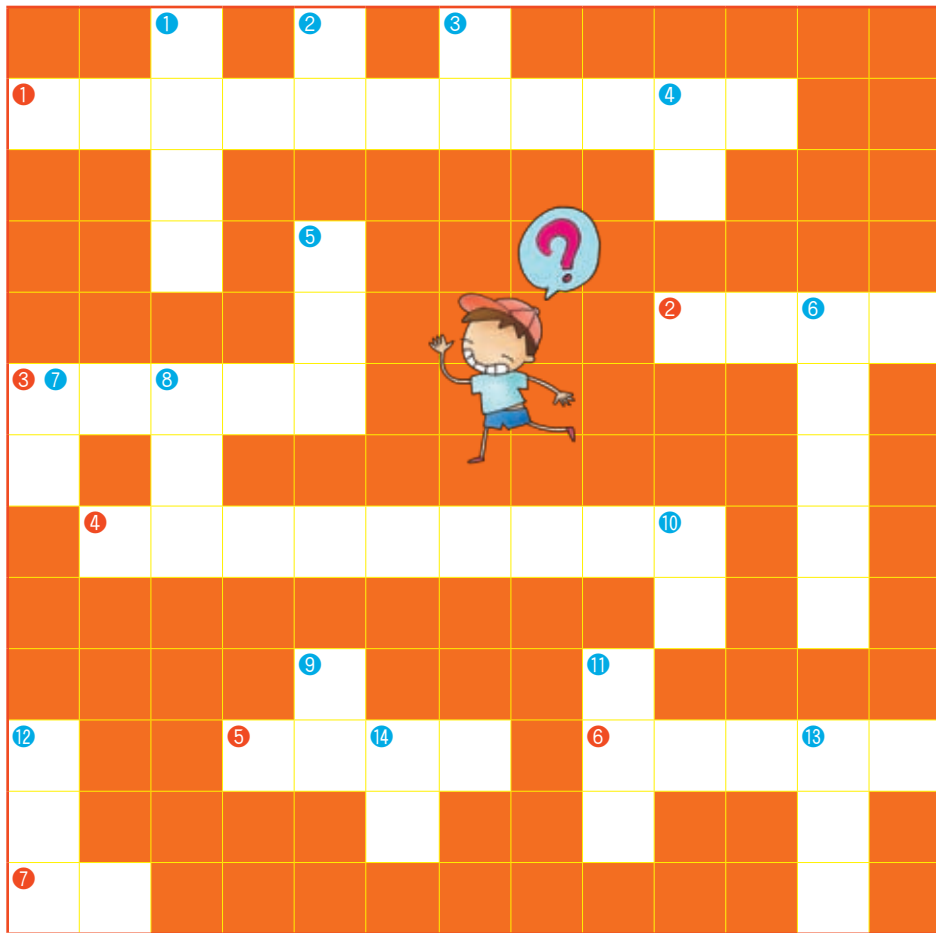
★ 조금더 노력하세요.

★ 성공!
이제 나도 경제박사

★ 아쉽지만 다시 한 번
도전하세요.



십자말 풀이



가로퍼즐

- ① 우리나라와 전 세계 다양한 화폐를 만나볼 수 있고, 한국은행이 하는 일과 경제에 대한 지식까지 배울 수 있는 곳입니다.
- ② 한글을 만들고 과학과 문화를 꽃피운 조선시대 네 번째 임금으로 10000원 앞면의 주인공입니다.
- ③ 조선시대 임금의 자리 뒤쪽에 놓은 병풍에 그려진 그림으로 해, 달, 다섯 봉우리, 십장생 무늬가 그려져 있습니다.
- ④ 고려시대에 만들어져 실물이 남아 있는 제일 오래된 돈. 뒷면에 우리나라 화폐임을 표시하는 '동국(東國)'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 ⑤ 조선 후기에 발행된 돈으로 전국적으로 유통된 최초의 화폐이자 가장 오랜 기간 사용된 화폐이기도 합니다.
- ⑥ 물가가 계속해서 오르기만 할 때의 현상을 말합니다.
- ⑦ 유럽의 EU국가에서 공통으로 쓰는 화폐단위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같은 나라에서 똑같이 사용할 수 있어요.

세로퍼즐

- ① 지폐를 빛에 비추어보면 인쇄된 인물이 바라보는 방향으로 해당 인물과 비슷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 ② 난초, 국화, 대나무와 더불어 사군자라고 하지요. 1000원 앞면에도 그려져 있습니다.
- ③ 이것은 나트륨과 염소의 화합물로 짠맛이 나며 구하기가 힘들었던 옛날에는 돈으로도 사용되었답니다.
- ④ 빵, 우유, 자장면 등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의 값을 말하지요.

- ⑤ 신사임당이 그렸다고 전해지는 그림으로 5000원 뒷면에도 수박, 맨드라미 등이 그려져 있어요.
- ⑥ 조선 후기에 제작된 우리나라 전국지도로 보물 850호인 이것은 새로 발행될 10만원 뒷면 도안소재로 선정되었습니다.
- ⑦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가장 작은 단위의 동전으로 앞면에 무궁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 ⑧ 찢어진 10000원 1장이 있는데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 크기의 절반입니다. 은행에 가지고 가면 얼마로 바꾸어 줄까요?
- ⑨ 노름이나 내기를 하면서 돈을 많이 딴 사람이 잃은 사람들에게 조금씩 돈을 나누어주는 것을 부르는 말로 상평통보에서 유래했어요.
- ⑩ 조선 세조 때 만들어진 화살촉 모양의 화폐로 평소에는 돈으로 사용하다가 전쟁이 나면 무기로도 사용했습니다.
- ⑪ 우리나라 최초의 상설조폐기관인 경성전환국에서 은화나 적동화 같은 근대동전을 만드는 데 사용한 기기입니다.
- ⑫ 우리나라 지폐를 만드는 데 쓰인 소재로 잘 찢어지지 않고 인쇄가 잘 된답니다.
- ⑬ 100원 앞면 인물초상으로 임진왜란 때 거북선을 이끌고 왜적을 물리치신 분입니다.
- ⑭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돈을 경제용어로는 이것이라고 불러요.



☆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나만의 돈을 그려 보세요.

☆ 화폐금융박물관에서 화폐와 놀면서 무엇을 배웠나요?

어린이 관람 예절



박물관에서 떠들거나 뛰어다니지 않아요.



전시실 안에서는 사진 촬영을 할 수 없어요.



전시실에는 음식물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어요.

참 잘했어요!
안내데스크에서
칭찬도장을 받아주세요.